

16년 소방인생

소방에 몸을 담는지도 어
연간 16년이란 세월
이 흘렀다.

그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직업이었으나 소
방에서 인생의 참뜻을 배웠고 참
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되
면서 오늘도 나는 소방밖에 모르
는 외길인생을 걷고있는 것이다.

나는 1972년 2월 1일자로 부산
소방에 몸을 담았다.

학교에 다닐 때 워낙 모든 운
동을 좋아해서 체력에 한하여는
자신이 있었으므로 나의 적성에
맞을거라는 판단과 안정된 직업
을 구한다는 것이 내가 소방을 택
하게 된 동기였다.

첫발령을 받은 곳은 부산 동래
소방서 수복파출소였다.

소장에게 첫 부임신고를 하던
날은 찬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었건만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던
지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
였다.

즉석에서 소장으로부터 간
단한 신상명세에 대한 신고를 하
고 소방관으로서의 근무자세에
대한 지침과 임무를 부여받고는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대기실은 출동에 대비해서 항
시 소방관이 대기하는 장소이며
또한 침실이다. 처음이라 누구하

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는 싸늘한 분위기로 인하여 나
에게는 너무나 긴장되는 외로움
의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하나밖에 없는 연
탄난로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나
의 잠자리에서 추위와 더불어 작
업복을 입은 채로 잠을 청하니 잠
이올 리 없었다. 이생각 저생각하
던중 갑자기 출동벨이 울리면서
순식간에 사이렌소리와 함께 차
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차를 타려고 뛰어나
가 보니 이미 모든 차는 차고지를
벗어나 쏟아갈같이 달려가고 있었다.
눈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신속하
게 출동하는 그 민첩성에 놀란 반
면 과연 내가 소방관으로서 능히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없는마
음이 앞섰다. 출동을 못한 죄책
감으로 나는 그날 눈한번 붙여보
지 못한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다.

가난한 셋방에서 지금쯤 포근
히 잠들고 있을 아내와 애들이 그
렇게도 보고싶었던 소방의 첫날
밤이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른
법은 없는 것이다. 소방관의 의
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없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모르는 일은 선배들에게 묻고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드디어 나에게도 무
언가를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진 것이다. 72년 3월 어느날 요
란스런 출동벨 소리와 동시에 나
는 소방차에 몸을 싣고 광안동의
어느 세탁소 화재현장으로 달려
갔다.

건물전체가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힌 화재현장은 마치 전쟁터
를 방불케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인명구조 특공대원이기 때문에 건
물내부로 진입하여 인명구조를 해
야했다. 열기와 심한 연기로 인
해 전면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하
여 담을 뛰어넘어 뒷문으로 들어
갔다. 이때 "사람살려!"하는 고
함소리와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
로 건물내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있는 힘을 다
하여 방안에 들어 갔을 때 내발끝
에 무언가 밟히는 물체가 있었다.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신
도 모르게 이 물체를 안고 밖으
로 뛰쳐 나왔다. 손전등을 비추
어보니 어린아이였다. 의식은 잃
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조금
만 늦었더라면 그아이는 숨을 거
두고 말았을 것이다. 얼마나 다
행한 일이며 얼마나 기뻐던지 나
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

다. 보호자에게 그아이를 인계한 후,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나는 건물내부로 다시 진입했다.

그 때 건물이 견디다못해 무너져내렸다.

나는 피신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기둥을 꼭잡고 있었다.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운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소방관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외침들이었다. 나는 사력을 다하여 무너진 스테이트 지붕을 밀치고 기어나왔다. 안타깝게 기다리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하마트면 나는 그때 운명을 달리할 뻔 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나는 그때 그 어린아이를 구한 댓가로 하늘이 나를 도운 것으로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나는 용감한특공대의 명칭이 붙여졌고 서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이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의 생명이다. 화마에 의하여 죄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 이 보다 더 숭고하고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소방에 들어온 것을 큰 영광과 자부심을 갖고 화재현장에서 신들린 사람처럼 인명을 구조하는데 내 육신을 던지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16년의 세월동안 2천여 회의 출동을 통해 나는 60여명의 생명을 구출해 냄으로써 소방관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다. 화재로 인해 무수히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 또한 그 많은 재산들이 일순간 잿더미로되는 현장을 목격

해온 나로서는 이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화재라는 사실과 화재를 예방하는 길이 곧 나 자신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총 3백여회에 걸쳐 2만여명 이상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를 하다보니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인간이 사는 동안 사람답게 살아야한다."는 인생철학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남을 도우면서 사람답게 살자." 이것이 오늘날 나의 좌우명이 된것도 화재현장에서 얻은 교훈이다.

나는 77년도 동구 수정동에 거주하는 황선옥이라는 실직자에게 박봉을 털어 리어카 1대를 사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준 일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 국제신보와 신아일보에 보도되면서 나는 남을 돕는 일에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직장에서나 이웃주민들로부터 자기도 잘 살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돕는다는 비웃음도 받아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난 후의 마음은 말로써는 표현 못할 쾌감과 인간으로서 뜨거운 정을 느끼기 때문에 횡수가 거듭 될수록 용기가 솟구친다.

달동네 영세민을 찾아 라면 등을 전달하였고 신문배달 소년에게 운동화와 장갑을 사주고 양노원과 고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산화경방대원 고지대 취로사업장을 찾아 음식을 대접하고 목조건물 영세집단 거주지에 소화기를 전달하고 불우원

호가족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는 등 총 30여회에 걸쳐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을 격려하는 동안 나는 인생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부산일보, 부산시보 등에 연속적으로 보도되어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면 나의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시민과 친숙하게 되었다.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이제는 나의 아내도 적극 동참하여 고아원 양노원등을 함께 위문하곤 한다. 이러한 나의 뜻이 결실을 거두어 87년도 제 14회 소방안전 봉사상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제급 특진과 많은 상금을 받아 기쁜 마음 비할데 없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이 상금은 계속 불우 이웃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성원해 주신 민방위본부장님, 소방국장님, 부산시 소방본부장님과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님이하 임직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신뢰받는 소방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굳게 다짐해본다.

끝으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지면을 할애해 주신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협회의 무궁한 발전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O)

